

수어로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편)

경기도수어교육원



## 수어를 표현할 때 주의할 점

1. 농인(聾人)은 시각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 수어(手語)라는 용어 때문에 수어는 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농인들은 서로 수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초점을 두고 더불어서 손의 움직임도 함께 한 시야에 놓습니다. 농인의 언어인 수어에서 얼굴은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얼굴과 손을 함께 봐야만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시야에 상대방의 얼굴과 손의 움직임을 두고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3. 수어에는 반말과 존댓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수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동일한 어휘가 반말이 되기도 하고 존댓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수어를 하면 됩니다.

4. 농인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대화내용에 따라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놀라거나 맞장구를 치는 등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 수어를 배우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수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선입견들이 있다. 여기서는 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수어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수어는 점자처럼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몇몇 사람들이 상의하여 결정을 내려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어도 자연언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 등 모든 언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면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농학교가 설립된 것은 1913년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어는 그 때 탄생되었고, 그때 만들어진 수어가 현재까지 전해져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어로 말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여 농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사용해 온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다. 청력 상태만 봐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며, 어릴 때는 조금은 들을 수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수어를 모어(母語)로써 사용하는 사람은 [농인]뿐이다.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국에 약 27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수어로 말하는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2년)

### 농학교에서는 수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국에는 청각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15개의 농학교가 있다. 그중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단계에서 수어가 교육 언어(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학교는 거의 없다. 교과목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수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농학교 현실이다.

농아동 중에는 양친(兩親)이 농인이어서 가정 안에서 수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학교 학생 중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농학교

의 학생 집단 속에서 선배나 동료들 통해 수어를 배우게 된다.

최근의 농학교는 학생수의 급감으로 존립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십여 년 전부터 이루어진 인공와우 이식수술로 인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농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으로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농학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청각장애 특수학교들은 학교의 존립을 위해 청각장애만이 아니라 지적장애 등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까지도 받아 들여, 농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수어는 한국어를 손짓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손짓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법과 어휘체계를 가진 별개의 전혀 다른 언어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차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 수어는 만국공통어이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각각 다른 것처럼 수어도 나라마다 다르다. 같은 영어권인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수어와 미국수어는 전혀 다르다.

또한 하나의 수어 안에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영향으로 한국과 대만 수어가 일본수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수어의 분포는 음성언어의 분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 수어는 외국어보다 학습하는 것이 쉽다?

수어가 다른 외국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할 수는 없다. 수어단어를 외우고 그것을 한국어의 어순대로 나열하는 것뿐이라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청인과 농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아주 많이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손짓한국어이지 한국수어가 아니다.

농인끼리 하는 한국수어의 회화를 이해하고 농인과 똑같이 수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어 학습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물론 수어학습과 외국어학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수어는 청각이 아니라 시각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수어에는 문자언어가 없다는 점 등이다. 청인이 시각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수어학습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 수어는 단어가 부족하다?

한국수어에는 농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어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단어수가 수십 만 개나 되는 한국어 어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수가 가령 50만 개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고어(古語), 사어(死語), 한정된 사람만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이 일평생 사용하는 어휘는 기껏해야 1만개 정도 - 이해어휘는 5만개 정도 - 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휘수가 많은가 적은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다.

## 수어는 추상적 표현이 어렵다?

수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오해는 몸짓(제스처나 판토마임)과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스처나 판토마임으로는 ‘어제’라든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어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농담도, 풍자도, 그리고 화자에게 지식만 있다면 철학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다.

수어는 언어(言語)이지, 그냥 몸짓을 정밀하게 나타낸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수어를 표현할 때 주의할 점  
수어를 배우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조망하기**
2. **인사**
3. **소개**
4. **물건**
5. **하루 일과**
6. **날씨**
7. **음식**
8. **시간**
9. **위치와 장소**
10. **경험**
11. **공간과 활동**
12. **관용표현**

- 부록**    한국수어 수형도  
          지숫자  
          지문자  
          미국수어 알파벳

### 한국수어의 구성요소 5가지

음성언어에서는 최소대립쌍이라고 불리는 단어 쌍이 있어서 음운론의 기본 구성요소들을 분리해서 기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통해 음소를 분리해낼 수 있다.

즉, 최소대립쌍의 예로는 ‘pat’과 ‘bat’을 들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연속해서 나는 세 개의 소리 중 하나의 소리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게다가 서로 대비되는 두 음 /p/와 /b/는 조음 자질에서 단지 하나의 측면만 차이가 있다. 즉, /b/는 발음을 할 때 성대의 떨림이 있는 유성음이고, /p/는 성대의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다. 이렇게 /p/와 /b/ 하나의 소리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영어에서는 /p/와 /b/는 음소로 영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 수형 (手形)

수형은 손가락의 접음과 펴(주먹 쥐고 펴), 편 손가락(즉 선택한 손가락)의 구부림 유무, 편 손가락들 사이의 접촉 유무,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편 손가락들 사이의 벌림과 붙임에 의해 그 변별자질이 나뉜다.

한국수어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통해 음소를 분리해낼 수 있다. 수위(手位)와 수향(手向)이 같으며 수형(手形)에서만 달라 그 의미가 바뀌는 수어는 [좋다]와 [있다], [괜찮다]와 [없다] 등이 있다.



[좋다]



[있다]

[좋다]와 [있다]는 수위가 코, 수향은 손바닥이 왼쪽으로 동일하다. 다만, 수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의미가 [좋다]인지 [있다]인지 결정이 난다.



**[괜찮다]**



**[없다]**

[괜찮다]와 [없다]도 수위가 턱, 수동은 가벼운 두드림 두 번 정도, 수향은 손바닥이 안쪽으로 동일하다. 다만, 수형의 차이로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 수동 (手動)

한국수어에서 다른 세 가지 음소는 같으나 수동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있다]와 [훌륭하다], [천천히]와 [지각] 등이 있다.



**[있다]**



**[훌륭하다]**

[있다]와 [훌륭하다]는 동일한 수형으로 코라는 수위까지 같다. 하지만 [있다]는 코 수위에서 그대로 있지만, [훌륭하다]는 수화자의 앞 방향으로 내미는 동작으로 수동에서만 달라진다.



**[지각]**



**[천천히]**

[지각]과 [천천히] 역시 수형, 수위, 수향이 동일하나 수동에서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하는 움직임에서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차이가 난다.

### 수위 (手位)

한국수어에서 다른 세 가지 음소는 같으나 수위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닭]과 [바보], [웃다]와 [과자] 그리고 [답답하다]가 있다.



**[닭]**



**[바보]**

[닭]은 수위가 이마이고 [바보]는 수위가 코이다. 수위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같은 수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자]**



**[웃다]**



**[답답하다]**

[웃다]는 턱에서, [과자]는 오른쪽 볼에서, [답답하다]는 가슴에서 두드리는 동작이며 동일한 수형이다. 턱에서 하느냐, 오른쪽 볼에서 하느냐, 가슴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향 (手向)

한국수어에서 다른 세 가지 음소는 같으나 수향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연습하다]와 [칭인], [여행]과 [양]이 있다.



**[연습하다]**



**[칭인]**

[연습하다]와 [칭인]은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구부린 수형, 입 앞의 수위, 회전 운동으로 세 가지 요소는 동일하지만 손바닥의 방향이 몸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과 몸 쪽으로 향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생긴다.



**[여행]**



**[양]**

[여행]과 [양]도 검지를 구부린 수형, 머리 옆의 수위, 회전 운동으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손바닥의 방향이 몸 바깥쪽을 향하였는가 몸 쪽으로 향하였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 비수지기호 (非手指記號)

비수지기호(非手指記號)란 NMS(non-manual signals)라고 해서 수어에서 손이나 손가락 이외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등 음성언어에서 초분절적인 요소인 음의 높낮이, 강세, 장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어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한국수어에서 다른 네 가지 음소는 같으나 비수지기호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귀엽다]와 [아깝다], [칭인]과 [맙다] 등이 있다.



**[귀엽다]**



**[아깝다]**

[귀엽다]와 [아깝다]는 손가락을 다 펴고 붙인 수형, 왼쪽 볼 옆이라는 수위, 두드리는 수동, 비스듬히 오른쪽을 향한 손바닥의 방향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귀엽다]는 웃는 얼굴 표정이고 [아깝다]는 아쉬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칭인]**



**[맙다]**

[칭인]과 [맙다]라는 수어도 수형, 수위, 수향, 수동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얼굴 표정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입을 벌리면서 매운 표정을 짓는 비수지기호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달라진다.

## 비수지기호(NMS)의 역할 6가지

(Bridges & Metzger, 1996)

한국수어에서 비수지기호(非手指記號)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턱을 끌어당기기, 턱을 들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 눈썹 올리기, 눈썹 내리기, 시선, 눈을 치켜 뜨거나 감기, 여러 가지 형태의 입 벌리기, 윗몸의 방향 등 손(手)과 손가락(指) 이외의 동작과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얼굴표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수어(手話)는 손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손과 손가락 이외의 움직임, 즉 비수지기호(NMS)의 움직임 또한 손의 움직임만큼이나 의미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비수지기호의 역할들을 살펴보면 (1) 감정표현(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2) 대화 규제(conversation regulators) (3) 어휘 구성요소(lexical markers) (4) 수식어(modifiers such as adverbs) (5)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 (6) 기능어(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 등이 있다.

### 1. 감정표현 (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인간의 감정은 표정으로 얼굴에 드러난다. 인간의 삶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험이 기쁨, 슬픔, 즐거움, 노여움과 같은 감정이다. 사람의 인상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로 일차적인 자기의 모습이 형성되지만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후천적인 영향과 개인의 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사람의 얼이 살아있는 곳이 얼굴이라고 한다. 얼굴의 인상은 그 사람이 주로 짓는 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정은 여러 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놓인 주변 상황에 따라 표정을 제한하게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정이 제한되면 자주 사용하는 근육과 그렇지 못한 근육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고 얼굴의 형태도 미세하게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인상도 변하고 바뀐 인상에서 개인의 운기도 변화되는 것이다.

“얼굴은 육체의 영혼이다.”(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얼굴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단순히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얼굴 표정은 ‘마음속의 감정이나 정서 따위의 심리 상태가 얼굴에 나타남’이라는 ‘표정’의 사전적인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감정과 얼굴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농인도 청인과 감정표현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자의 감정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수지기호(NMS)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자.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기쁘거나 슬픈 일은 아닐 것이다. 화자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약 화자가 비수지기호로 울상을 지으면서 [비]++ 라고 했다면 언어적 표현은 ‘비가 온다’라고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이 화자에게는 좋지 않은 일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수지기호로 웃음을 지으면서 [비]++ 라고 했다면 비가 오는 것이 화자에게 아주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비수지기호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비가 온다. nms  
[비]++

## 2. 대화규제 (conversation regulators)

대화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대화에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한다. 대화도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어가며, 어떻게 끝맺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농인들이 사용하는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는 이러한 대화할 때의 기본 규칙들을 비수지기호(非手指記號)를 통해 주고 받는다. 수화자 간에 시선 접촉(eye contact)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어도 괜찮은지 아닌지,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다음은 누가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수지기호가 대화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어휘구성요소 (lexical markers)

한국수어에서 비수지기호가 어휘를 구성하는 요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귀엽다]	[아깝다]
[청인]	[맵다]
[소금]	[철저하다]
[어지럽다]	[놀랍다]
[생각]	[왜]

#### 4. 수식어 (modifiers such as adverbs)

부사어는 문장에서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한정하며 관형사·부사·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말을 뜻한다. 한국어에서는 ‘배가 몹시 아프다’, ‘꽃이 아주 예쁘다’와 같이 ‘몹시’, ‘아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예쁜지를 나타낸다. 이에 반하여 수어에서는 비수지기호가 부사어처럼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가 몹시 아프다.	<u>nms</u> [배] [아프다]
꽃이 아주 예쁘다.	<u>nms</u> [꽃] [예쁘다]

#### 5. 구성된 행동 (constructed action)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는 혼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역할전환(role shift)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과 화자를 동시에 나타낼 경우가 있다. 이것을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시각언어인 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농인의 경우 자유자재로 아주 능숙하

게 구성된 행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자료화면 참조). 수어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농인들의 유창한 표현들을 많이 보아야 하며 그것을 따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6. 기능어 (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

영어와 같은 음성언어에서는 강세(stress)와 박자도 억양(intonation)에 포함된다. 억양은 문장에 얹히는 높이 곡선을 말한다. 문장에서 나타나는 억양은 다양한 억양(예를 들면 놀라움, 분노, 신중함)을 전달한다. 영어를 비롯하여 많은 음성언어에서는 억양이 한 유형의 어구나 문장을 다른 유형의 어구나 문장과 구별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중간 높이로 시작하여 낮은 높이로 끝나는 하강 억양의 “Your name is John.”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서술인데 반하여, 마지막 소리가 높은 성조로 끝나는 상승 억양의 “Your name is John?”이라는 문장은 의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음성언어에서 억양이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유형을 구별해주는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수지기호의 다양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한국수어에서 비수지기호가 문법표지로 사용된 예(의문문, 조건문, 부정문)를 나타낸 것이다.

① **의문문** : 눈썹이 올라가고,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춘다.

\_\_\_\_\_q로 표시함.

(예문 2) 집에 가니?

\_\_\_\_\_q  
[집] [가다]

(예문 3) 집에 간다.

\_\_\_\_\_.  
[집] [가다]

② **조건문** : 시선을 아래로 하고, 눈썹이 올라가고, 턱을 당기며 고개를 끄덕하는 것.

(예문 4) 돈을 주면 책을 준다.

\_\_\_\_\_nms  
2[돈+주다]1, [책] 1[주다]2

③ 부정문 : 머리를 가로 흔든다. neg로 표시함.

(예문 5) 아직 읽지 않았다. neg  
[읽다] [아직]

여기서 예를 든 것 외에도 비수지기호의 문법표지의 기능은 더 많이 있다. 가령 열거를 할 때, 관계절을 표시할 때에도 비수지기호가 사용된다.

## 조망하기

- 평면과 입체를 구분할 때 수형의 변화가 있다!
- 수어는 화자(話者) 중심이다!
- 시각언어에서는 수어가 이어지는지 끊어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음성언어인 한국어에 익숙한 청인에게 있어서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잘못된 노력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조망하기’는 청인들이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를 배울 때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준다. 조망하기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기초를 닦게 되는 것이다. 수어를 배우면서 항상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 만두 샘의 포인트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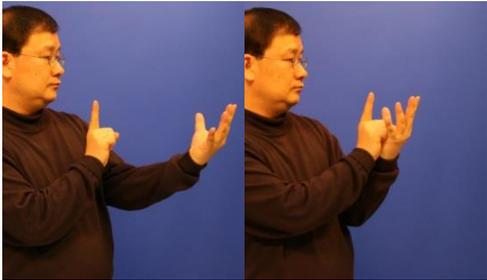
###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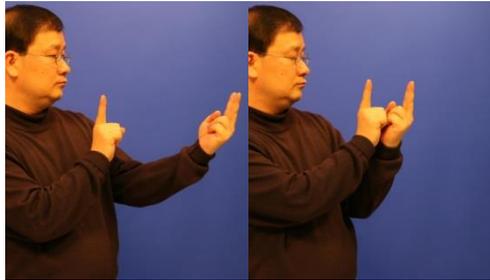
#1 나와 상대방이 만나는 상황



#2 남남끼리 만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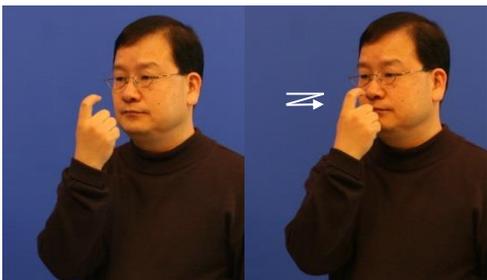
#3 나와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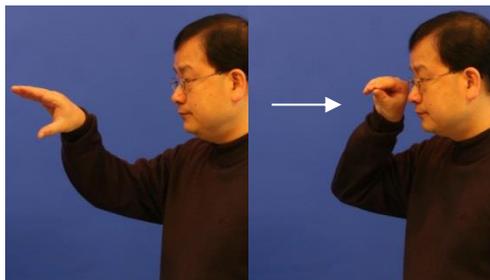
#4 나와 두 명이 만나는 상황

수어에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굴절동사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는 서술어인 ‘만나다’의 형태가 변하지 않겠지만 한국수어에서는 상황맥락에 대한 정보가 서술어인 [만나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언어감각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배우다]



#1 ‘배우다’의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2 자신의 의지로,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가르치다]



#1 '가르치다'의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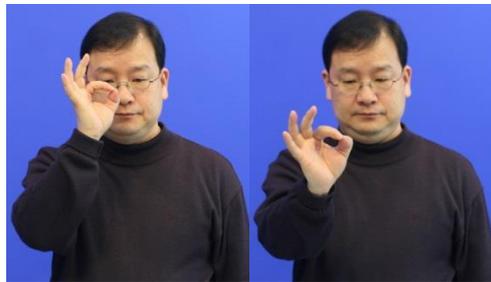


#2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다]



#1, #2 '보다'의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한 손 수어와 양손 수어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의 변화는 없다.



#3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들여다보다',  
'자세히 살펴보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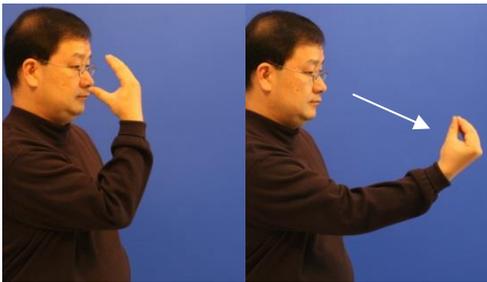
#4 어떤 대상(사람이나 사물 또는 장면 등)을 바라보거나 지켜볼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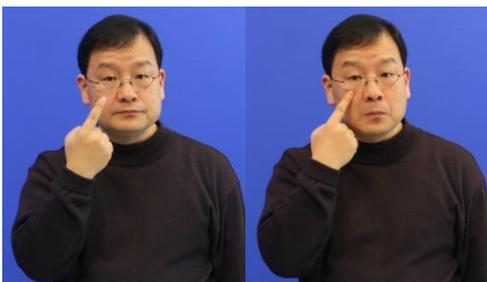
**#5**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마주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6** 어떤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어떤 사람인지를 외관상으로 살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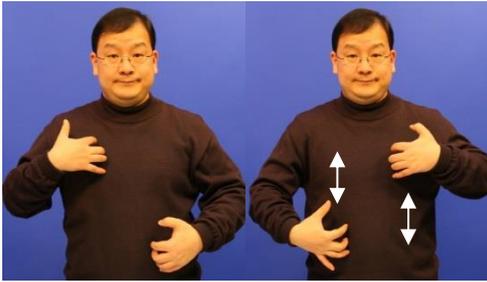


**#7**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우연히 보게 되거나 눈에 띄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8** 이 단어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해보다’,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한국어의 ‘보다’와 연관되어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예 - 생각해 보다, 어디 한번 보자 등)

### [반갑다/즐겁다/기쁘다]



한국어에서는 각기 다른 단어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한국수어에서는 한 단어로 세 가지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 [pointing]



이 수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다의어(多義語)이다. 어떤 사물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면 '지시대명사'가 되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너/당신을 나타내거나 그/그녀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되기도 한다.

이 수어가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 | '의문문'과 '평서문'

소리언어에서는 의문문과 평서문의 구분을 억양으로 한다.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는 의문문과 평서문의 구분을 **비수지기호**로 나타낸다. 얼굴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변화를 이해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어를 통한 표정의 변화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의문문



[농인]

평서문



[청인]



[배우다]



예 문

\_\_\_\_\_q

만두 : [너] [농인]

\_\_\_\_\_.

수진 : [아니다], [나] [청인]

\_\_\_\_\_q

만두 : [너] [청인], [너] [수화] [배우다]

\_\_\_\_\_.

수진 : [맞다]. [나] [수화] [배우다]

\_\_\_\_\_q

만두 : [포인팅] [농인] [청인]

\_\_\_\_\_.

수진 : [포인팅] [청인], [나] [같다] [수화] [배우다]

- |                    |            |               |
|--------------------|------------|---------------|
| · 만나다              | · 헤어지다     | · 농인(聾人)      |
| · 청인(聽人)           | · 맞다/그렇다   | · 아니다         |
| · 누가/누구            | · 배우다      | · 가르치다        |
| · 수어(手話)           | · 같다       | · 다르다         |
| · 보다               | · 듣다       | · 말하다         |
| · 연습하다             | · 숫자/번호    | · 이름/성명       |
| · 안녕하세요/<br>안녕히계세요 | · 나/저      | · 반갑다/즐겁다/기쁘다 |
| · 너/당신             | · 우리, 여러분  | · 처음/우선/먼저    |
| · 살다/지내다/생활        | · 만두-수어이름  | · 동물          |
| · 쥐, 소, 호랑이        | · 토끼, 용, 뱀 |               |
| · 말, 양, 원숭이        | · 닭, 개, 돼지 | · 지숫자 1~10    |

## 제3강 소개

부정표현 **단순부정** [아니다], **의지부정** [안하다]를 구분-표현할 수 있다.

### 부정표현 1

한국수어는 부정표현에서 한국어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안’부정과 ‘못’부정으로 크게 구분하지만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부정표현에 사용되는 어휘가 풍부하다. 한국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배워두지 않으면 의사소통할 때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다]는 어떤 사실을 단순히 부정할 때 사용한다.

[안하다]는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사용한다.

한국수어에서 부정문의 특징은 **부정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다.

#### 단순부정



[아니다]

#### 의지부정



[안하다]

#### 예 문

\_\_\_\_\_ q  
만두 : [너] [남자]

\_\_\_\_\_ .  
수진 : [아니다], [나] [여자]

\_\_\_\_\_ q  
만두 : [너] [남자] [바꾸다] [원하다]

\_\_\_\_\_ neg  
수진 : [안하다]. [나] [여자] [원하다]

- 소개하다/통역하다
- 사람/남자/여자
- 좋아하다 - 싫어하다
- 좋다 - 나쁘다
- 무엇
- 원하다/~고 싶다
- 가족
- 아버지, 어머니
- 할아버지, 할머니
- 형, 오빠
- 언니, 누나
- 알다 - 모르다
- 혼자/홀로/스스로/자기
- 죽다/사망/별세/서거
- 낳다/태어나다
- 있다 - 없다
- 젊다 - 늙다
- 남동생, 여동생
- 형제, 자매
- 아들, 딸, 친구
- 결혼, 남편, 아내



\_\_\_\_\_q

만두 : [너] [결혼]

\_\_\_\_\_.

수진 : [맞다], [나] [결혼] [끝]

### 농민화에 대한 이해 1

농민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소리를 듣는(청력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을 낳게 된다. 농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아동들은 농부모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어와 농민화를 접하게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음성언어와 청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지니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선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라고 하는데, 수화통역이나 농학교 교사 등 농민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이들이 지니는 능력과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만두 샘의 포인트 레슨

---

### [좋아하다] - [싫어하다]



**[좋아하다]** : ‘호불호’의 ‘호’ 개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싫어하다]** : 이 단어는 ‘싫어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절’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 [좋다] - [나쁘다]



**[좋다]**



**[나쁘다 #1]**



**[나쁘다 #2]**

**[좋다]** : 영어 ‘good’의 개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나쁘다] #1** : ‘나쁘다’, ‘악(惡)’, ‘못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2** : 품질이 좋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없다]



#1



#2

수형에서 엄지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는 변화가 없다. 수화자의 취향/습관에 따라 둘 중 한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3 '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머리카락이 없다'고 할 때 사용한다.



#4 이 단어도 '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장소나 위치에 없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사용한다

동사의 종류

한국수어에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굴절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비굴절동사**이다. 미국수어에서는 일반동사(plain verb), 일치동사(agreement verb), 공간동사(spatial verb)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수어에서 굴절동사는 공간을 이용하여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표시하는 동사들을 이른다. 예를 들면, **[가르치다]**, **[야단치다]**, **[주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굴절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굴절동사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누가 주어이고 누가 목적어인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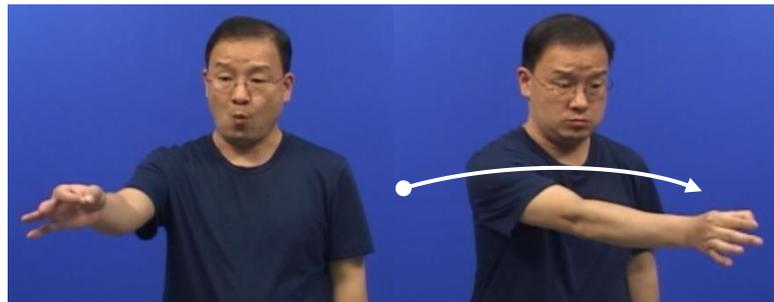
1 [돈-주다] 2



2 [돈-주다] 1



3a [돈-주다] 3b



2 [가르치다] 1



1 [야단치다] 3s



비굴절동사는 굴절동사와는 달리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굴절동사와 비굴절동사의 구분은 쉽게 할 수 있다. 동사를 수어로 표현할 때 수화자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신체 가까이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대부분 비굴절동사에 해당된다.

비굴절동사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어순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한다. 비굴절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공간이 아니라 어순을 통해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절동사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어순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한국어수어로 표현할 때 한국어 어순과 똑같이 표현하면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

- ▶ 한국어 : 나는 어제 새 옷을 입은 친구를 만났다.
- ▶ 한국어대응수어 : [나] [어제] [새롭다] [옷] [입다] [친구] [만나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친구’이다.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게 되면 한국어수어문장에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친구’가 아닌 ‘나’가 된다. 이는 ‘입다’라는 동사가 비굴절동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나’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석하면 ‘나는 어제 새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예 문

\_\_\_\_\_ q  
 만두 : [커피] [한잔] [얼마]

\_\_\_\_\_ .  
 수진 : [커피] [한잔] [8000]

\_\_\_\_\_ t \_\_\_\_\_ q  
 만두 : [커피] [한잔] [8000], [비싸다]

\_\_\_\_\_ neg \_\_\_\_\_ .  
 수진 : [아니다]. [다르다] [곳]++ [같다]

- 커피, 녹차, 우유
- 돈, 현찰, 신용카드
- 가격/얼마
- 싸다 - 비싸다
- 보통 - 특별하다
- 책상
- 의자
- 칠판
- 읽다
- 쓰다
- 많다 - 적다
- 문, 창문
- 보다 - 보이다
- 듣다 - 들리다
- 말하다1/ 말하다2
- 시장
- 백화점
- 영화
- TV
- 전화/전화 걸다 - 받다
- 선물
- 신문
- 빌리다 - 빌려주다
- 물건, 물가
- 오르다 - 내리다
- 세탁기
- 과자
- 휴대폰, 스마트폰
- 냉장고
- 지숫자 11~20

## 만두 샘의 포인트 레슨

### 굴절동사와 비굴절동사의 구분

**굴절동사** : 공간을 이용하여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표시하는 동사들을 이른다. 굴절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굴절동사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무엇이 주어이고 무엇이 목적어인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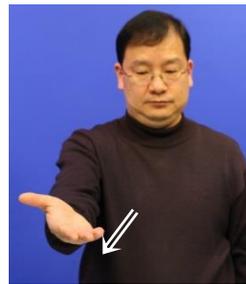
( [가르치다], [야단치다], [주다] 등 )



[가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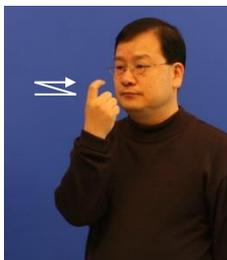
[야단치다]



[주다]

**비굴절동사** : 비굴절동사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수화자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신체 가까이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대부분 비굴절동사에 해당된다. 비굴절동사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표시한다. 따라서 비굴절동사가 포함된 문장은 어순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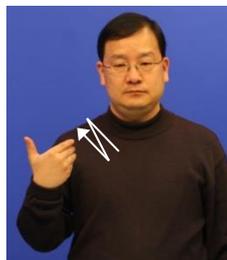
( [배우다], [알다], [모르다], [입다], [벗다] 등 )



[배우다]



[알다]



[모르다]



[입다]



[벗다]

## 제5강 하루 일과

부정표현 **상태부정** [없다], **완료부정** [아직~않다]를 표현할 수 있다.

### 부정표현 2

**[없다]**는 어떠한 상태를 부정할 때 사용한다. (예쁘지 않다, 비가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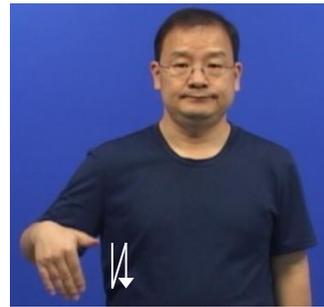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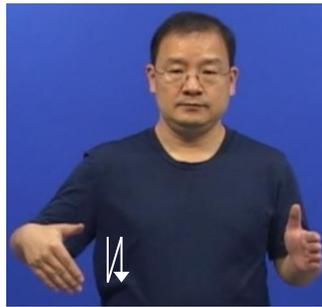
**[아직~않다]**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 상태부정



[없다]

#### 완료부정



[아직~않다]

### 예 문

\_\_\_\_\_ q  
만두 : [너] [어제] [수업] [오다] [안하다]

\_\_\_\_\_ .  
수진 : [아니다], [어제] [나] [참석하다]

\_\_\_\_\_ q  
만두 : [너] [못보다]

\_\_\_\_\_ . \_\_\_\_\_ .  
수진 : [맞다]. [나] [조금] [늦다]

\_\_\_\_\_ nms \_\_\_\_\_ .  
만두 : [아, 그랬구나] [알다]

- 하루
- 일주일
- 새벽
- 저녁
- 가다 - 오다
- 일하다
- 세수하다
- 빨래하다
- 입다 - 벗다
- 어제 / 오늘 / 내일
- 몇 시
- 1일
- 아침
- 낮 - 밤
- 다니다
- 시작하다 - 끝나다
- 목욕하다
- 청소하다
- 깨끗하다 - 더럽다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개월 / 한 달
- 1시간
- 점심
- 밝다 - 어둡다
- 먹다 / 마시다
- 일어나다 - 자다
- 머리 감다
- 옷 / 바지 / 치마
- 과거 / 현재 / 미래
- 지숫자 20~50

## 농문화에 대한 이해 2

농인들은 서로 대화할 때 결코 상대방 손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거나 하지 않는다. 상대의 얼굴 - 특히 눈을 주로 본다 - 을 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손의 움직임을 눈에 들어오며, 내용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어에서 단순하게 동작만으로 의미를 변별하기도 하지만 미묘한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의사를 표현할 때에 (시선처리, 입의 모양, 눈썹, 코, 볼, 이마, 턱 등의 위치나 방향,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른) 얼굴 표정이 아주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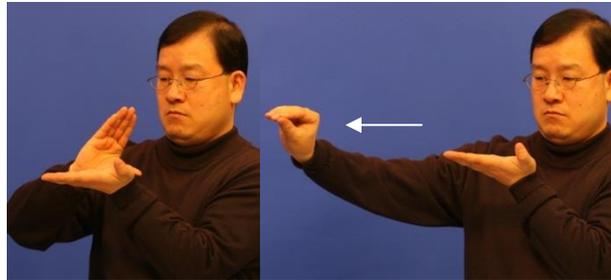
물론, 정면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수어는 옆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만두 샘의 포인트 레슨

### [가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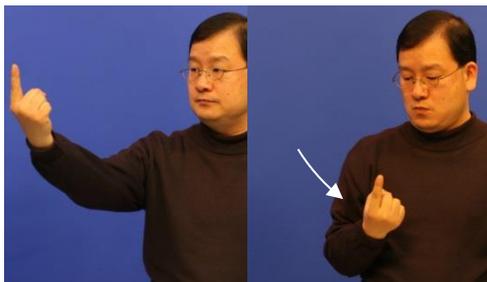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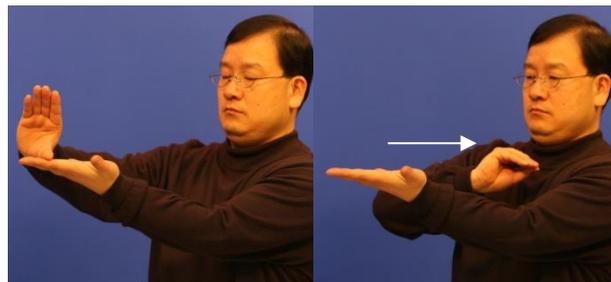
#1 : 일반적인 ‘가다’의 의미를 갖는다.

#2 : 이 단어는 ‘가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갔다’, ‘가버렸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오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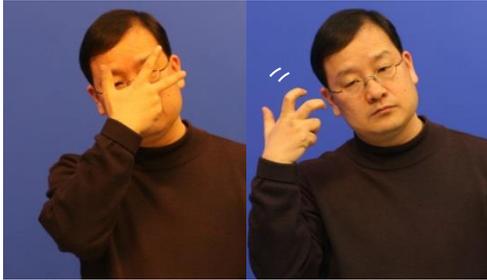


#2

#1 : 일반적인 ‘오다’의 의미를 갖는다.

#2 : 이 단어는 화자의 입장에서 어떤 자리나 모임에서 중간에 나오게 되었을 때 사용한다. ‘와버렸다’,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다]



#1



#2

**#1 :** 일반적인 ‘자다’, ‘잠’의 의미를 갖는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 이 단어는 잠이 깊이 들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 제6강 날 씨

부정표현 **경험부정** [~적없다],

**능력부정** [못하다][할수없다]를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다.

### 부정표현 3

**[~적없다]**는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하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나] [흥치다] [~적없다]

**[못하다][할수없다]**는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소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남자] [아이] [낳다] [할수없다]

#### 경험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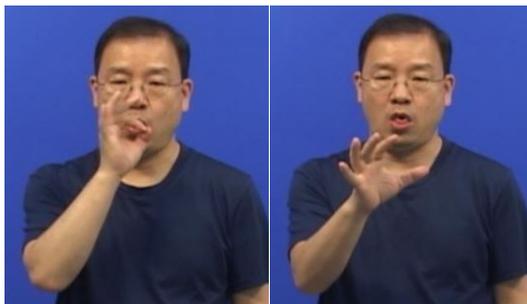


[~적없다]

#### 능력부정



[못하다]



[할수없다]

예 문

\_\_\_\_\_ q  
 만두 : [너] [아프리카] [가다] [~적있다]

\_\_\_\_\_ neg \_\_\_\_\_ neg  
 수진 : [고개흔들], [나] [아프리카] [가다] [~적없다]

\_\_\_\_\_ .  
 만두 : [나] [작년] [겨울] [때] [아프리카] [가다오다]

\_\_\_\_\_ q  
 수진 : [맞다]. [아프리카] [날씨] [무엇]

\_\_\_\_\_ .  
 만두 : [아프리카] [날씨] [좋다], [그러나] [덥다]

- 날씨
- 여름 / 덥다
- 해 / 태양
- 구름
- 바람
- 불 / 화재
- 땅 / 흙 / 가루
- 나무
- 바다
- 우물 / 샘
- 계절
- 가을 / 바람불다
- 달
- 눈(雪)
- 안개
- 무지개
- 꽃 / 꽃피다
- 산
- 돌 / 바위
- 색깔 / 흑, 백, 청, 녹, 적
- 봄 / 따뜻하다
- 겨울 / 춥다
- 별
- 비
- 물 / 수요일
- 하늘
- 풀 / 숲
- 강
- 섬 / 제주도
- 지숫자 51~100

## 문 형 연 습

[당신]	[색깔] [좋아하다] [계절] [좋아하다]	___q [무엇]
[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 [바다] [강] [눈] [비] [출다] [덥다]	_____. [좋아하다] / [싫어하다]

### 농민화에 대한 이해 3

농인은 초면의 상대가 농인인가? 청인인가?를 직접 본인에게 물어서 확인하곤 한다. 청인으로서의 실례가 될지 모르나 농인의 세계에 있어 그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또, 농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대로 헤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언제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친구들 중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만큼 농인들의 세계는 좁고, 인간관계도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농사회를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언어인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분류사 구문 - SASS, 도구, 신체, 취급분류사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인간의 세계 인식은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을 묶어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 언어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것을 역으로 하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언어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변별되는 특성에 따라 구분지어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세계 인식의 태도가 언어에 나타나는 것으로, 명사로 표현되는 사물을 부류화하는 언어적 기제가 존재한다.

음성언어에서 **분류사**란 유사한 형태나 의미에 의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수 분류사가 있다. 즉, 수를 셀 때 사람은 ‘명’, 종이는 ‘장’, 자동차는 ‘대’, 동물은 ‘마리’처럼 앞의 명사에 따라 수를 세는 단위 명사가 달라진다. 따라서 ‘한 명’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고, ‘한 장’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종이처럼 얇고 평평한 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어에서도 지시체를 명확한 특성에 따라 표현하는 분류사가 있지만, 그것이 명사에 한정된 한국어와 달리 동사 안에서 발생한다. 수어에서 분류사는 한 단어, 명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구 혹은 문장 단위까지 포괄하여 동사의 주체나 대상을 분류한다. 수어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차원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손 모양을 사용하며, 이러한 손 모양은 동사와 결합해 다양한 구문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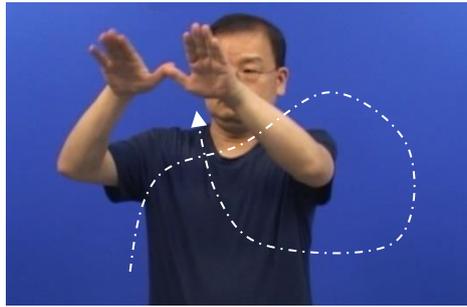
[물고기]



{물고기-헤엄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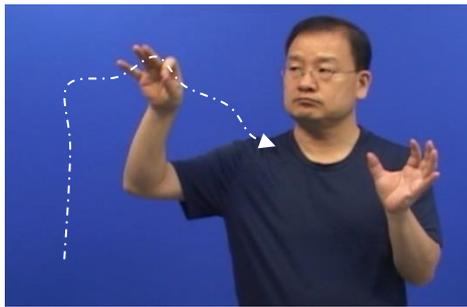
[나비]



{나비-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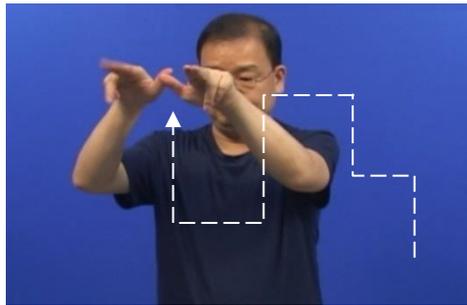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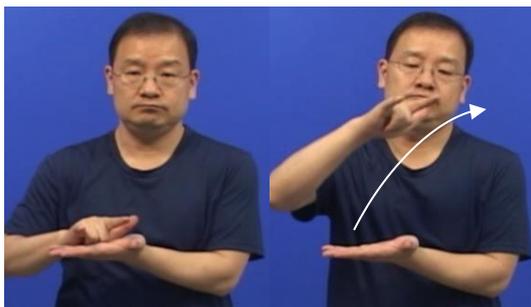
{꽃에 나비가 날아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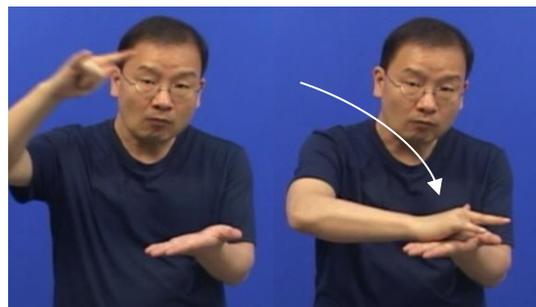
[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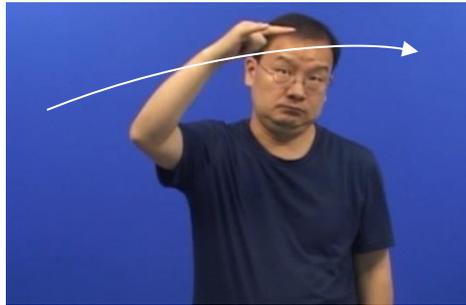
{잠자리-날다}



{비행기-이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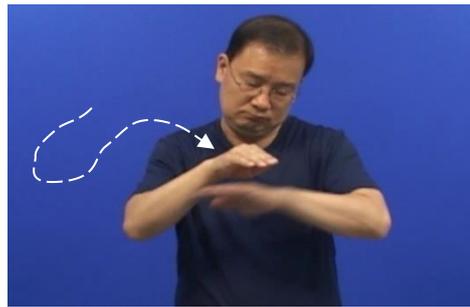
{비행기-착륙하다}



{비행기-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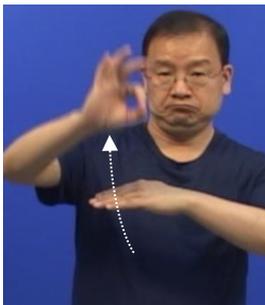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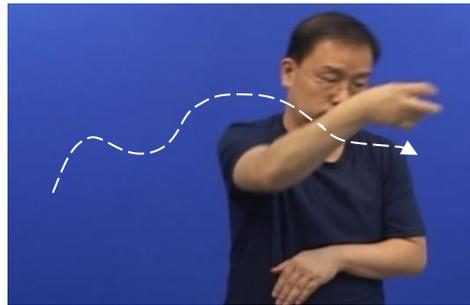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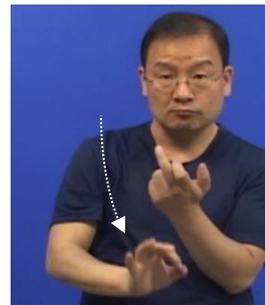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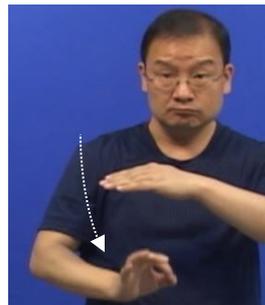
{자동차-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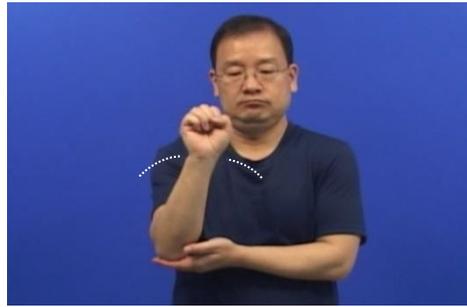
[버스]



{해-뜨다}



{해-지다}



{자동차-운전하다}



[오토바이]



{오토바이-운전하다}



{국수-먹다}

예 문

\_\_\_\_\_ q  
만두 : [너] [맵다] [좋아하다]

\_\_\_\_\_ .  
수진 : [아니다], [나] [맵다] [먹다] [못하다]

- 음식
- 맛있다 - 맛없다
- 맛
- 시다
- 싱겁다
- 숟가락 - 젓가락
- 굴
- 바나나
- 포도
- 감자
- 먹다
- 배부르다 - 배고프다
- 짜다
- 쓰다
- 삼키다 - 토하다
- 사과
- 감
- 딸기
- 밤
- 고구마
- 마시다
- 시장하다/출출하다
- 달다
- 맵다
- 많다 - 적다
- 배
- 참외
- 수박
- 옥수수
- 술, 소주/맥주/막걸리

### 문 형 연 습

[당신]	<p>[음식] [중(中)] [좋아하다] [술] [중(中)] [좋아하다]</p>	<p>_____ 9 [무엇]</p>
<p>[나] [남편] [아들] [딸] [친구] [아버지] [어머니]</p>	<p>[짜다] [사과] [달다] [커피] [술] [맵다] [감자] [바나나] [배] [딸기] [옥수수]</p>	<p>_____ . [좋아하다] / [싫어하다]</p>

## 만두 썸의 포인트 레슨

### [분류사의 종류]

#### 1) SASS (Size and Shape Specifier, 크기와 모양 특정자)

SASS(크기와 모양 특정자)는 손의 일부가 대상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명사와 호응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SASS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의 각 부분이 형태소이고, 그것들이 동시에 표현하는 일군의 형태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손의 형태 그 자체가 SASS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 또는 손의 부분을 형태소로 보고, 손 모양은 그 형태소들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먹을 쥐고 검지만 편 수형일 때, 검지의 손가락 끝은 점을 표시한다. 그리고 검지 전체는 선을 표시하므로 2개의 SASS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엄지를 펴서 동그라미 모양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통해 특정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 2) 의미 분류사(semantic classifiers)

의미 분류사(semantic classifiers)는 손이 대상물의 의미 범주를 표시하는 것으로 손 모양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다. 따라서 이를 개체 분류사라고도 한다. 의미 분류사는 다리모양 분류사(legged object classifiers), 수평이동체 분류사(maneuverable horizontal object classifiers), 수직이동체 분류사(maneuverable vertical object classifiers), 원주체 분류사(columnar object classifiers)가 있다.

다리모양 분류사는 2개의 손가락을 펴 아래 방향으로 뻗는 것으로, 보통 인간의 다리는 검지와 중지로 나타내고 4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은 양 손을 다 사용해 표현한다.

수평이동체 분류사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것으로 평면적인 것을 나타낸다.

수직이동체 분류사란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거나 왼쪽으로 향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검지를 펴서 끝을 위로 향하고 손바닥의 방향을 앞쪽이나 왼쪽으로 향하는 형태는 사람이나 동물이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때 다른 손가락을 하나 더 펴서 그 사람이나 동물의 수를 더할 수 있다.

원주체 분류사는 세운 팔이 원기둥 모양의 물체를 나타내고, 팔과 손을 조합해 대상

물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국수화의 TREE(나무)의 경우, 팔은 나무의 줄기를, 손은 가지를 의미한다.

### **3) 신체 분류사(body classifiers)**

신체 분류사(body classifiers)는 몸 전체가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을 맞는다]라는 수어를 할 경우, 수화자의 몸 전체가 맞는 사람을 표현한다.

### **4) 신체 부분 분류사(body part classifiers)**

손이나 신체 부위가 신체 부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2개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즉 손은 신체 부위의 형태를 나타내고, 신체의 위치는 신체의 공간적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체 부분 분류사(body part classifiers)는 신체 부위 분류사와 팔다리 분류사로 나뉠 수 있다.

### **5) 도구 분류사 (instrument classifiers)**

도구 분류사(instrument classifiers)는 사물을 조작할 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 분류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해 사물을 조작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열쇠로 문을 여는 형태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형태 등을 말한다.

## I 시제 표현

시제(時制)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같은 문장 속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나 행위가 나타나 있을 때 그것들 사이의 시간상의 앞뒤 관계가 어떠한지를 문법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언어에는 시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로 구분되거나 ‘과거-비과거’로 구분된다.

한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서술어(동사, 형용사)에 시간에 대한 언어정보가 담긴다. 반면에 한국수어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형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표현된다.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어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한국수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은 문장의 처음이나 주어 바로 다음에 시간 부사를 사용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든 현재시점으로 발화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가 사용되면 그것이 시간의 장을 형성해서 그 시간(과거 또는 미래)에 구속되는 것으로 본다.

한국어에서는 용언에 시간에 대한 언어정보가 담겨 있다. 발화시점에서 발화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인지 나중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언어정보가 용언에 담겨 있다. 이에 반해 한국수어에서는 서술어에 시간에 대한 언어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다.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이 한국어와 동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특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한국수어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 ‘[먹다]+[끝]’ 이라고 하면 ‘먹었다’는 과거형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완료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국수어에서 ‘[먹다]+[끝]’이 과거시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먹다]



[끝]

한국수어의 서술어에는 시제(tense)에 대한 언어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시상(aspect)**이라는 언어정보가 있다. 어떤 행위나 동작, 상태가 지속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진행상), 끝났는지(완료상)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

그녀는 예뻐다.

한국수어



[그녀]

[예쁘다]



[그녀]

[과거]

[예쁘다]

예 문

\_\_\_\_\_ 9

만두 : [너] [요즘] [배우다] [무엇] \_\_\_\_\_ .

수진 : [나] [수어] [배우다], [일주일] [2번] [월요일] [수요일]

- |                        |               |                |
|------------------------|---------------|----------------|
| · 시간                   | · 때 / 경우      | · 언제           |
| · 며칠                   | · 년(年)        | · 월(月)         |
| · 일(日)                 | · 시(時)        | · 분(分)         |
| · 초(炒)                 | · 시각(時刻)      | · 1월 ~ 12월     |
| · ~개월 / ~달             | · 매일          | · 가끔           |
| · 어디                   | · 왜           | · 어떻게          |
| · 계속                   | · 또 / 자주      | · 주다 - 받다      |
| · 선물                   | · 오전, 오후      | · 옛날 - 지금      |
| · 지루하다/싫증나다            | · 준비하다        | · 아마           |
| · 불확실하다 /<br>애매하다 / 희미 | · 확실하다 / 분명하다 | · 지숫자 백단위, 천단위 |

**농문화에 대한 이해 4**

농인은 어떤 인물을 화제에 올릴 때 그 사람의 옷이나 몸에 걸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퐁퐁하다’, ‘말랐다’, ‘눈이 처졌다’, ‘눈이 가늘다’ 등 신체적 특징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묘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 청인 문화와는 다르다. ‘멍청하다’, ‘똥망똥망하다’ 등 그 사람의 표정을 비롯하여 버릇이나 이미지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농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올라있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 수어이름이라고 하는데 농인들끼리 수어로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청인들도 수어를 배워서 오래 수어통역을 하다 보면 농인들이 수어이름을 지어주게 된다. 대화 중에 느닷없이 사람이름이 끼어들기도 하는데 모르는 수어가 나온다면 대부분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 제9강 위치와 장소

사건이나 이미지를 묘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Ⅰ 사건, 이미지의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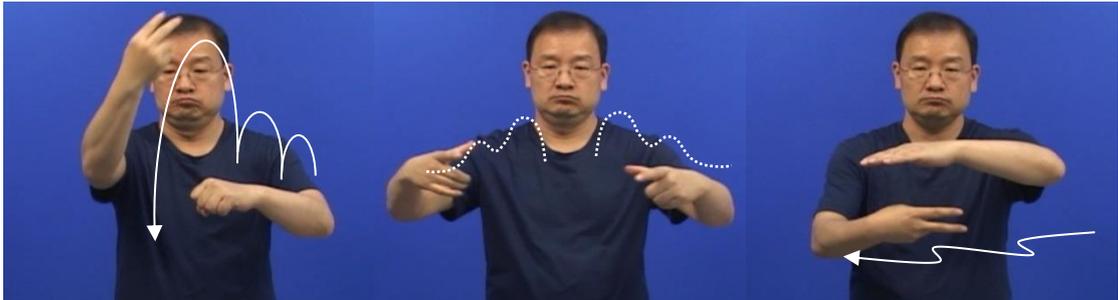
수어는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소리로 나타내는 음성언어와는 전혀 새로운 양상이 공간에서 펼쳐진다.

‘비가 세차게 내린다’와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는 표현을 수어에서는 비수지기호와 수동으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수어에서는 훨씬 실제와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심하게 보고 익혀서 멋지게 표현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라~

나비가 꽃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간다.



개구리가 폴짝폴짝 연못에 풍덩 빠졌다.



- 도시 - 시골                      · 학교                              · 병원
- 약국                                  · 은행                              · 시장
- 백화점                              · 우체국                          · 경찰서
- 도서관                              · 법원                              · 공원
- 집                                      · 아파트                          · 걷다 - 뛰다
- 앉다 - 서다                      · 사다 - 팔다                      · 교통
- 버스                                  · 자동차                          · 택시
- 지하철                              · 비행기                          · 배
- 오토바이                          · 정류장                          · 타다 - 내리다
- 조심하다 / 지키다              · 안전하다 - 위험하다        · 지숫자 만단위, 억단위



\_\_\_\_\_q

만두 : [너] [살다] [동네] [병원] [있다]

center                      \_\_\_\_\_ .                      right

수진 : [나] [집] [앞] [학교], [옆] [병원] [있다]

\_\_\_\_\_ .                      \_\_\_\_\_ .

만두 : [나] [살다] [동네] [병원] [없다], [너] [행복하다]

수진 : [이사오다] [괜찮다]

## 제10강 경험

상황부정 [거절] [금지] [불가능] [불능]을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다.

### 부정표현 4

한국어에서 ‘안 되다/안되다’로 표현되는 것들이 한국수어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대응하지 않는다. ‘안 되다/안되다’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대응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절하는 상황인가, 금지하는 것인가, 불가능을 나타낼 때인가, 불능을 말할 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수어에서는 각기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거절



금지



불가능



불능

예 문

\_\_\_\_\_ q  
 만두 : [농인] [듣다] [가능하다]

\_\_\_\_\_ neg  
 수진 : [아니다], [농인] [듣다] [못하다]

\_\_\_\_\_ q  
 만두 : [너] [생각], [아이] [담배] [괜찮다]

\_\_\_\_\_ neg  
 수진 : [아이] [담배] [금지]

\_\_\_\_\_ q  
 수진 : [돈] [있다], [빌리다]

\_\_\_\_\_ : \_\_\_\_\_ neg  
 만두 : [미안하다], [나] [돈] [없다]

- 경험 / 겪다
- 지명
- 유명하다
- 부산
- 광주
- 평택
- 수원
- 안성
- 충청도
- 제주도
- ~적 있다 - ~적 없다
- 쉬다
- 전국
- 대구
- 인천
- 전주
- 목포
- 경기도
- 전라도
- 울릉도
- 여행
- 놀다
- 서울
- 대전
- 울산
- 춘천
- 마산
- 강원도
- 경상도
- 종로, 을지로,  
명동, 광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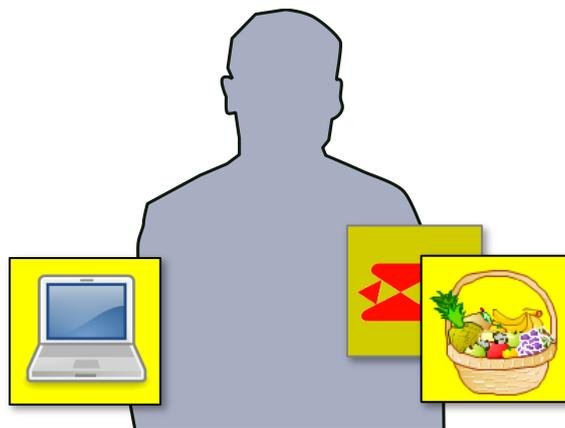
## 제11강 공간과 활동

공간의 활용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

수어는 공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음성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영역인 공간을 수어에서는 문법 요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수어에서의 공간은 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수어를 표현하는 공간은 동일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매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다.

먼저, 수어자는 지형적 수어 공간 안에 실세계의 것들을 배치한다. 예를 들어 수어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지역의 쇼핑물을 소개하고자 할 때, 사물들의 위치관계대로 사물들을 배치한다. 만약 **컴퓨터 매장이 과일 매장** 반대편에 있고, **과일 매장은 우체국 옆**에 있다면 수어자는 그것들을 수어공간에 위치시킨다.



이에 반해 통사적 수어공간은 실세계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화자가 ‘형제’를 소개한다고 할 때, 수화자는 임의로 수어하는 공간에서 왼쪽에 ‘형’을, 오른쪽에는 ‘동생’을 위치시킨다. 그러나 수어를 하는 동안에 실제로 형과 동생이 수화자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형과 동생의 위치는 두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어공간 안에서 두 개의 추상적인 개념을 위치시킬 수 있다(Sutton-Spence, 1998).

형

동생



예 문

\_\_\_ q

수진 : [아들] [딸] [좋아하다] [무엇]

right \_\_\_\_\_ left \_\_\_\_\_

만두 : [아들] [자전거] [좋아하다], [딸] [드라마] [좋아하다]

\_\_\_\_\_ : \_\_\_\_\_ :

수진 : [나] [아들] [똑같다], [나] [딸] [똑같다]

\_\_\_\_\_ t \_\_\_\_\_ neg

만두 : [똑같다]. [이상하다]

- 취미
- 영화 / 드라마
- 등산
- 춤 / 연극 / 공연
- 앞, 뒤, 옆
- 배드민턴
- 느리다 - 빠르다
- 이상하다
- 운동 / 스포츠
- 음악
- 낚시
- 선수, 프로, 아마추어
- 야구, 축구, 농구
- 양궁, 사격, 유도
- 예선, 결선
- 주최하다
- 독서
- 미술
- 사진
- 상, 하, 좌, 우
- 배구, 탁구
- 이기다 - 지다
- 똑같다
- 응원하다

## 농문화에 대한 이해 5

농인들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손 흔들기, 어깨를 건드리기, 책상 두드리기, 발 구르기, 전등을 켜다 껐다하기 등 상대나 장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 곁에 있는 다른 농인과 눈이 마주칠 때 부탁하기도 한다.

부르고자 하는 사람의 시계(視界) 안에 무슨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동이다. 손 흔들기나 어깨 건드리기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거나 깜짝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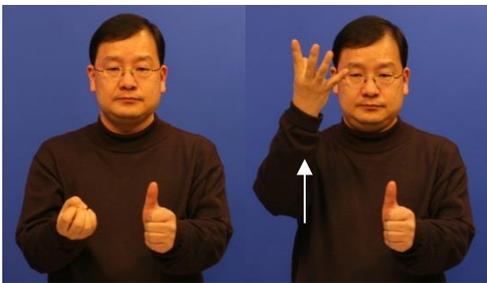
## 만두 샘의 포인트 레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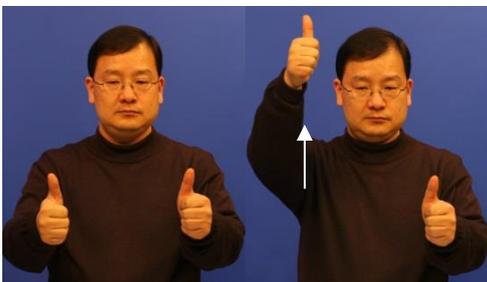
### [이기다]



**#1 :** 일반적인 ‘이기다’의 의미를 갖는다. 상대방을 앞지르거나 굴복시켰을 때, 참고 견디어냈을 때 사용한다.



**#2 :** ‘승리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3 :** 승패를 겨루거나 판정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이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관용 표현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단어를 다의적이라고 한다. 다의성은 언어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어형성의 생산성,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모든 자연언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단어는 다의적이어도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기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문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어를 포함한 모든 자연언어에는 비유법이 있다. 만일 한 낱말에 하나의 의미만 주어져 고정된다면 비유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수화언어에서 비유는 언어운용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다.

특히 한국수어에서는 음성언어 환경과 수화언어 공동체를 넘나드는 언어운용을 통해 독특한 비유법이 발전해 왔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귀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깜짝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쥐]라는 단어는 ‘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아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수화언어 공동체 속에서의 회화체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 낱말은 쓰임에 따라서 보다 폭넓은 비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수어도 모든 자연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 체계가 발전해 온 결과,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등 폭넓은 비유 체계를 이용한다. 한국수어에서 이와 같은 비유 체계는 문화의 바탕 위에 자리 잡음으로써 속담을 포함하는 관용표현의 형성으로까지 그 폭을 확장하고 있다.



[공부] + [힘] 수재, 공부를 잘하다



[눈] + [귀신] 귀신같이 알아채다. 눈치가 빠르다



[귀신] + [엇비슷하다] 도사 같다



[기분] + [갈등] 비위가 상하다



[기억] + [냄새] 기억력이 좋다 (-)



[깨끗하다] + [주다] 솔직히 말하다



[냄새] + [미심쩍다] 김새를 채다



[냄새] + [파악] 흰히 안다



[눈] + [싸다] 잘못 보다



[돈] + [죽다] 돈이 궁하다, 자금이 바닥나다



[돈] + [힘] 부자, 돈이 많다

- 가다 - 오다
- 많다 - 적다
- 웃다 - 울다
- 강하다 - 약하다
- 좋다 - 나쁘다
- 정말 - 거짓말
- 나타나다 - 사라지다
- 싸다 - 비싸다
- 멋지다 - 추하다
- 결혼하다 - 이혼하다
- 젊다 - 늙다
- 짧다 - 길다
- 살다 - 죽다
- 부드럽다 - 단단하다
- 좋아하다 - 싫어하다
- 칭찬하다 - 야단치다
- 유식하다 - 무식하다
- 쉽다 - 어렵다
- 있다 - 없다
- 사다 - 팔다
- 크다 - 작다
- 멀다 - 가깝다
- 기쁘다 - 슬프다
- 같다 - 다르다
- 깨끗하다 - 더럽다
- 기억하다 - 잊다
- 잘하다 - 못하다
- 알다 - 모르다
- 맛있다 - 맛없다
- 순종하다 - 거역하다

예 문

\_\_\_\_\_ q  
만두 : [너] [나+책] [못보다]

수진 : [나] [조금전] [봤다], [너] [책상] [위] [있다].

\_\_\_\_\_ nms  
만두 : [책] [없다]

수진 : [아니다], [나] [봤다]. [다시] [가다] [확인] [보다]

\_\_\_\_\_ q \_\_\_\_\_ .  
만두 : [정말], [나] [눈+싸다] [맞다]

\_\_\_\_\_ t  
수진 : [나][맞다].

예 문

\_\_\_\_\_ q  
만두 : [배고프다]. [돈] [빌리다]

수진 : [나] [요즘] [돈] [죽다]. [미안하다].

\_\_\_\_\_ q \_\_\_\_\_ nms  
만두 : [돈] [없다], [어쩔수없다]

# 1. 한국수어 수형도



1



1-1 (10)



2



2-1 (20)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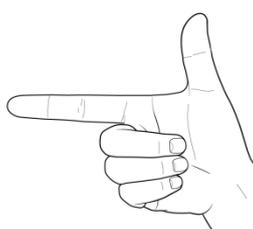
5



5-1 (5)



5-2 (5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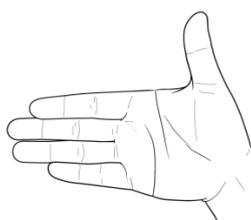
6-1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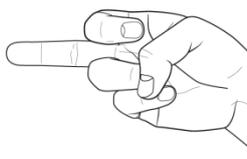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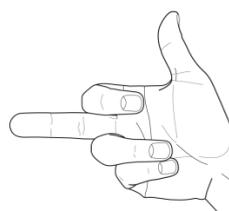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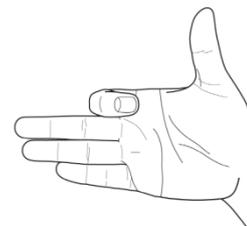
9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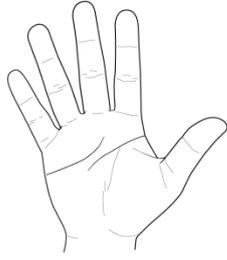
19



**B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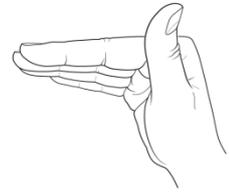
**B-1 (ㅍ)**



**B-2 (5)**



**B-3 (장소)**



**B-4 (굽은)**



**C**



**C-1 (물)**



**F**



**F-1 (안되다)**



**F-2 (기린)**



**F-3 (제비)**



**F-4 (귀신)**



**G**



**G-1 (공)**



**G-4 (보너스)**



**I (여자)**



**O**



**o**



R



S (주먹)



T ('고')



U (없다)



Y (있다)



백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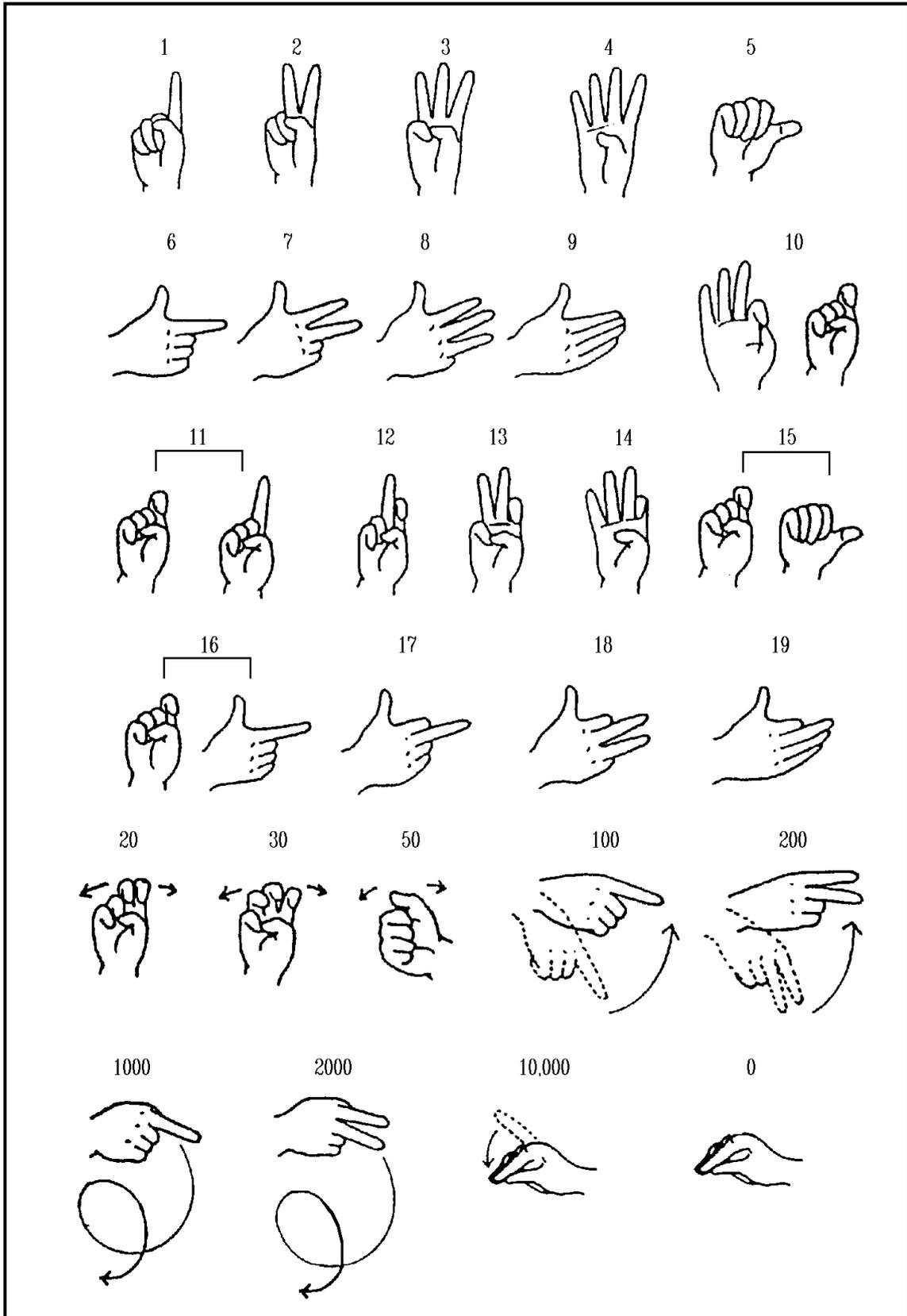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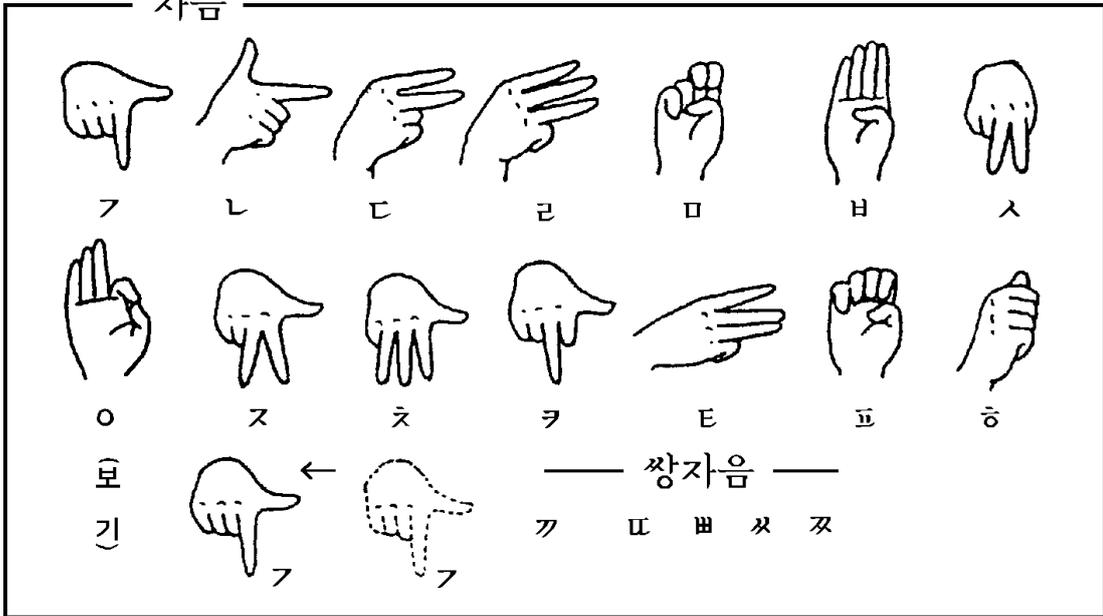
자동차

## 2. 한국수어 지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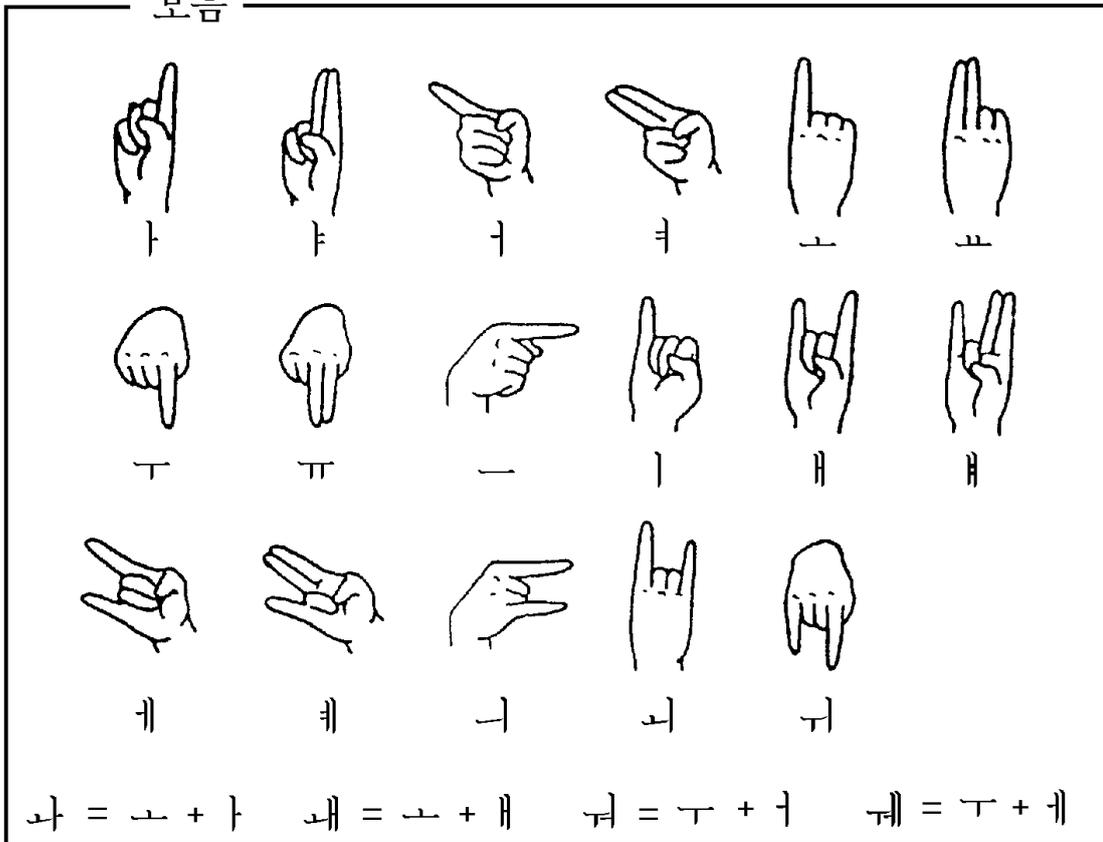


### 3. 한국수어 지문자

자음



모음



#### 4. 미국수화 알파벳

